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에 선 사람들

여호수아 7-24장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큰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하찮은 아이 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불신 세대가 죽고 믿음의 세대만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믿음의 세대는 더 굳건해집니다.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아이 성 사건 _ 수 7-8장

아이 성의 패배 _ 수 7-8장

아간의 실수, 내 뜻대로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성입니다. 고고학자는 5천 년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여리고 성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고 지금도 성벽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시기를 기원전 1250년이나 기원전 1350년으로 보는데, 기원전 13-14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의 일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제일 큰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위 벧엘 옆에 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작은 성이니까 3천 명 정도 병력을 보내면 깨끗이 쓸어버릴 것 같다고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뒤라 "이렇게 하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 있어. 그냥 3천 명만 보내."라고 어리석은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패했습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게 알려

지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됩니다. 지옥의 그림자가 비쳤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두드려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궤 위에 쓰러져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를 제비 뽑아 색출해 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 아간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삼중살'을 명령했습니다. 삼중살은 세 번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으므로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남아 있으면 바알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읍들을 불태워 없애라는 것입니다. 성읍 안에 바알 우상의 신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서 빼낸 모든 전리품을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단, 금과 은은 나중에 성소 그릇 만드는 데 쓸 수 있으니까 성소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아간이 챙긴 전리품은 요즘으로 말하면 밍크코트 같은 바벨론에서 만든 가죽옷입니다.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도 취했습니다. 성소에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챙겼던 아간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저주의 기둥을 쌓았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작은 것도 하나님 뜻대로

저는 유년 주일학교 시절에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찬송가 355장) 하는 찬송 가사가 "아! 골골짝 빈들에도"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물질을 따라갔던 아간을 처형했던 골짜기라는 사실을 알았

습니다. 이 찬송가는 "물질이 만연한 곳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입니다. 아이 성에서 왜 패했습니까? '작은 곳이니까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 성은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이 성 패배의 교훈은 '작은 것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장군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가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 주어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리더십의 상징으로 지팡이를 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단창을 주셨습니다. 전쟁을 하는 내내 여호수아는 단창을 계속 들고서 기도하고 지휘했습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수 8:26).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전역을 점령하다

기브온 족속의 사기 사건 _ 수 9장

기브온 족속은 예루살렘 성이 생기기 전, 예루살렘 성의 서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 위에 살았던 가나안 일곱 족속 중 한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온 이래로 요단 동편과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한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게 속한 것은 무릇 사람이든 동물이든 호흡하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기네들이 싸워 봤자 죽을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남으려고 속임수를 씁니다.

이들은 곰팡이 슨 떡과 다 해진 포도주의 가죽 부대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싸울 의사가 전혀 없다. 당신들과 화해하기 원한다. 우리의 소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것이니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달라."

여호수아는 아무 의심 없이 이들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 이들을 물 긷고 빨래하고 발 씻어 주는 천한 종으로 삼습니다. 나중에 기브온 족속의 배신을 알게 된 가나안의 나머지 족속들은 연합(가나안 남부연합군)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남부연합군의 격퇴 _ 수 10장

남부연합군은 가나안 남쪽 지방 헤브론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한 군대입니다. 이들이 기브온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로 내리치셨기 때문에 가나안 남부연합군은 계속 뒤로 물러납니다. 기브온 산 위에서 이스라엘 군들이 그들을 따라 내려가면서 추격합니다. 가나안 남부연합군이 아얄론 골짜기를 타고 달아나는데, 하나님은 "저들 중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저들을 다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날같이 포탄이 있어서 한꺼번에 여러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칼이나 창으로 쳐야 하는데 그러자니 시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급하니까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수 10:12). 실제로 해와 달이 24시간 멈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와 달이 도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돕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의 에너지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히 1:3). 지구가 24시간 멈췄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조사해 보니까 지구가 24시간 동안 돌아야 할 것을 48시간 만에 한 바퀴 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과 애굽의 달력에는 만 하루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인간의 말을 들어 주신 인류 최초이자 최후의 자연현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수 10:14).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남부연합군을 격퇴하자 다음에 북부연합군이 달려들었습니다. 북부연합군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는 곳의 하솔 왕이 들고 일어나서 모인 군대입니다. 이번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을 다 격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했습니다.



기업 분배

언약이 이루어지다 _ 수 13-2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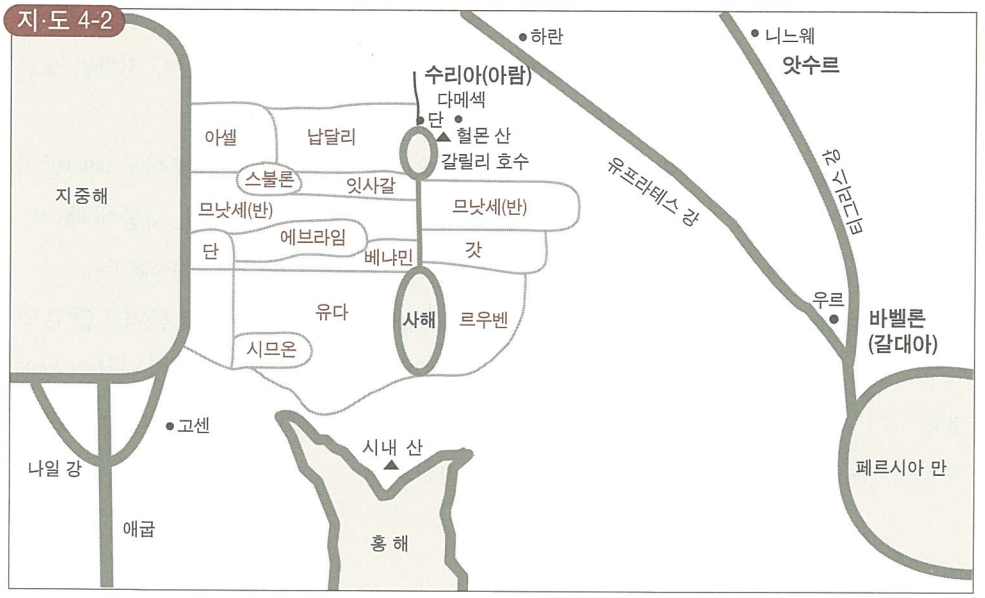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한 뒤에 기업 분배가 시작됐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창 12:7)고 하셨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벧엘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네가 돌베개 베고 누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창 28:13)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5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그 업' 이라는 뜻입니다. '그 업(inheritance)' 은 유산이요,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미 모세 때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갓 지파와 르우벤과 므낫세 두 지파 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기업 분배의 세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땅 분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파의 규모에 따른 분배입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들 수가 다릅니다.

셋째는 지파 간의 관계입니다. 지파 간에 형제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원칙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했



정복 시대 _ 기업 분배 정복 전쟁 후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따라 12지파의 기업이 정해집니다. 레위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몫을 받습니다.

습니다(창 49:4).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지만 나중에 모압 족속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누이 강간 사건 때 세겜 족속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어 대속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창 49:7) 하신 대로 둘째 아들 시므온은 네게브 사막 남쪽의 땅을 조금 받았으나 나중에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지파 수도 제일 많을 뿐 아니라 사해 옆에 제일 큰 땅을 받습니다. 야곱이 제일 많이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창 49:8).

다섯째 아들 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약간 위쪽 땅을 받았으나, 그 땅 아래쪽에 거하던 블레셋이 두려워서 사사기 때 갈릴리 호수 북쪽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섯째 아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옆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동네가 납달리 지경에 있습니다.

일곱째 아들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얻습니다.

여덟째 아들 아셀 지파가 지중해 연안의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아홉째 아들 잇사갈 지파와 열째 아들 스불론 지파는 북부 내륙 지방의 땅을 받습니다.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 두 지파 몫을 가집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강 양 옆의 땅을, 에브라임 지파는 여리고 위쪽의 땅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친아들이 열한 번째 아들 요셉과 열두 번째 아들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묶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것을 절대 팔지도 않고 넘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맥삽기 그래서 나중에 나봇이 왕에게도 자기 기업(포도원)을 팔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할지로다 하니"(왕상 21: 3).

세겜 언약 _ 수 24장

여호수아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에브라임에 있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놓고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자신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희들이 너희 신을 선택하라." 그러자 모든 장로들이 화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수 24:18). 이 언약이 세겜 언약입니다(수 24:15-25). 이렇게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에게 사랑의 응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고 자발적인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벽한 자유의지로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장로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응답해서 세겜 언약을 맺었으나, 여호수아와 그를 섬기던 장로들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삿 3:7).

영성탐구 14

헌금통은 마귀 담는 바구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10). 돈에 매인 사람은 부모도 자식도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는 이유는 헌금할 때 '나'만 생각하는 마귀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통을 마귀 담는 통이라고 비유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헌금을 많이 할수록 나의 이기적인 죄성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능력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 부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해놓고 아까운 생각이 들자 돈을 일부 숨겨 놓았다가 죽습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영이 역사합니다. 돼지 떼, 닭 떼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아무 영도 역사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든, 사탄의 영이든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돈을 끝까지 붙들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고 잘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병에 걸린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다 주었더니 자식이 가출해서 일을 저지릅니다.

진정한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크게 창조하셨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먹을 것이 있고, 아무리 땅을 차지하려고 해도 아직도 밟아 보지 못한 땅이 있을 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무한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히 1:3).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기도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우리 사건과 환경을 연결시켜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처리하십니다.

부자는 신용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거지같이 먹을 것 끌고 다니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의식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의식(ceremony)이 많이 나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명한 두 갈래 길의 의식(신 11:26-28)을 에발 산과 그리심 산 가운데서 행할 것을 이스라엘에 명합니다(수 8:33).

세겜은 벧엘 위에 있습니다. 세겜 아래에 있는 산이 그리심 산이고 윗쪽에 있는 산이 에발 산입니다. 에발 산은 '악' 이라는 뜻의 영어 'evil' 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세겜 땅에 법궤를 놓고 12지파를 반으로 나눠, 여섯 지파는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고 다른 여섯 지파는 에발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두 갈래 길이란 축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으리라." 이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 사관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맥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신 11:29).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식을 통해 보여 주시고 마음속에 새겨 넣으라고 하십니다.

예언서 17권 역시 이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축복이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다." 하는 것이 역사서에 있는 신명기 사관이라면, 예언서의 두 갈래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축복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언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국가가 멸망으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신약 시대 복음서에서도 두 갈래 길을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 13-14).

마태복음에는 좀 더 강도 높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영에 속한 자)와 행하지 않는 자(육에 속한 자), 이 두 갈래 길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은 모두 이 두 갈래 길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는 문이 닫힙니다(마 25:1-13 참조).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의 예에서도 분명하게 두 갈래 길을 설명하십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마 22:12-13).

또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마 25:31-46). 소자가 주릴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에 간호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돌아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로 두 갈래 길이 나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와 육에 속한 성도로 나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최종 결론은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자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 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좇는 것은 내 몸이 하라는 대로, 사탄의 영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고전 12:2).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령님을 좇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엡 6:18)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라야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갈 5:22-23)가 나타납니다.